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7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ug.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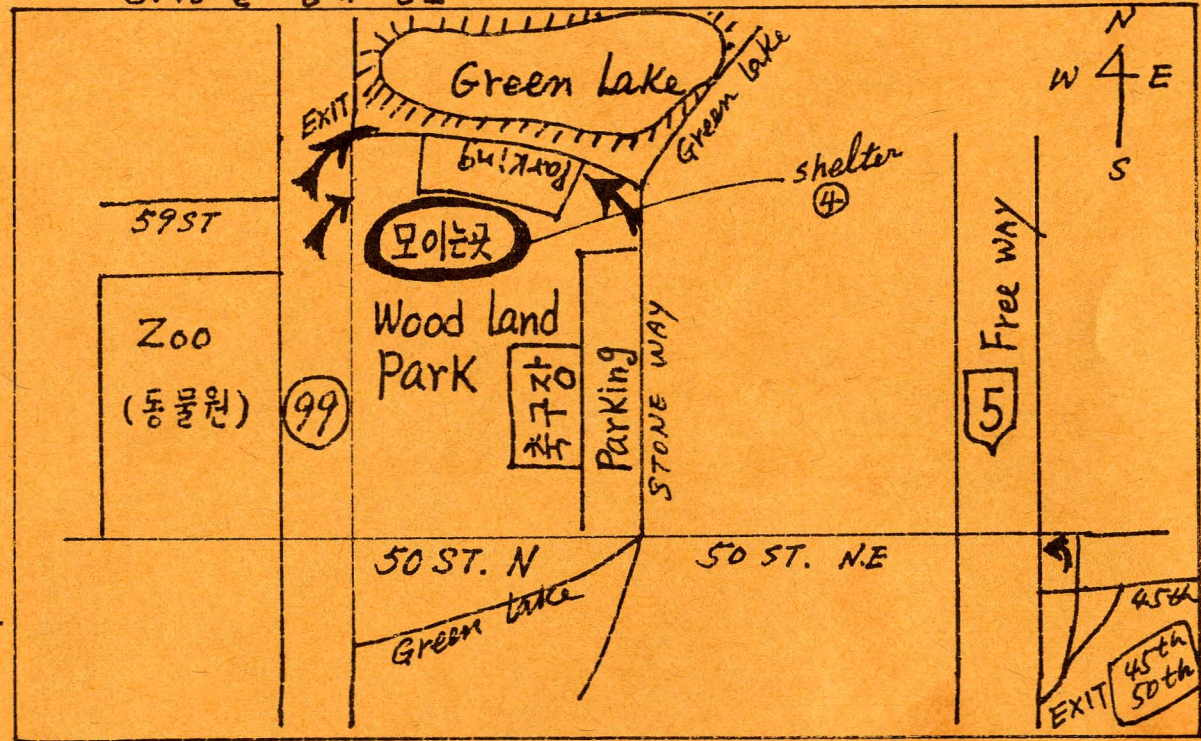


(물동이로 물 길는 모습)

## 광복절 기념식 및 행사 안내

조국 광복 32주년을 맞아 우리 한인회에서는 여러 교민들과 함께 기념식 및 행사를 가지  
교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가족 피크닉을 겸하게 되며  
어린이(국민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으며, 타코마 축구팀과 시애틀 축구팀의 친선 경  
기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 있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 날짜: 1977. 8. 13 (토). 오전 11시
- 장소: Wood Land Park (북쪽)
- 진행: 기념식, 점심(각자 준비), 아동 미술대회, 축구 경기
- 미술 대회 참가자는 크레톤과 발칙을 준비할것. (미술지는 한인회에서 제공 함). 상품있음.
- 축구 경기는 Park 바로 옆에 있는 축구장에서 합니다. (약도 참고)



### 본국 수재민을 위한 의연금 모금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도하여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바와 같이 본국의 여러곳에서 있었던 수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의 수재민을 돕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인회로 의연금을 보내주시면 일괄하여 본국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의류나 기타 물건은 제외하고 금품만을 취급 하려오니 교민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재 의연금은 수표를 이용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재 의연금'이라고 명기 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Sea-Tac Airport 안내

김형진 한인회장은 8월 1일 공항의 관계직원들과 접촉하여 한인들이 공항 이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한국인의 여러가지 편의를 위하여 공항 안에있는 Seattle World Trade Center 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며, 봉사센터 직원을 통하여 Northwest 항공을 이용하는 한국인의 편의를 보아주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씨아틀을 경유하는 사업인들은 공항의 조용한 곳에서 업무도 볼수 있으며 휴식을 취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오는 가정이나 그 외의 공항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분들은 미리 봉사센터로 연락 하셔야 합니다. 봉사센터 주소와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612 6th Ave S.  
Seattle, Wa. 98104  
전화: 624-7604

### 한인 주소록 발간 준비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모든 교포들의 주소를 한데 모아 한권의 책자로 만드는 한인 주소록 발간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인 주소록에서 빠진 분, 이사를 하신분, 새로 오신분, 주소록에 있는분 등 모든 교포들의 주소를 수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 하오니 여러분께서도 협력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소록(77년)에 있는분들도 재확인 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과관 양식에 쓰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을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알려서 이름, 전화, 주소, 가족수등을 적어서 보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를 갈 예정(12월 이전)으로 되어있는 가정은 새집 주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다시 알려 주셔야 틀림이 없겠습니다. 파관 종이 아래 부분의 보조금란 뜻이 있는분은 협조해 주시고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주소록 부분만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 "보조금"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낼 주소: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교회대항 배구대회 10월8일 예정

지난 7월 13일,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씨아틀 타코마 지역 교회대항 배구대회를 주최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마다 연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날짜는 10월 8일 토요일로 정하였습니다. 각교회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경기를 즐기면서 친목을 두텁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통지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한인회에서 하겠으며 트로피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각교회에서는 자체 행사일정에 이날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ASHINGTON 주 이혼 법 (속)

변호사 에디 운

이혼 할 때 제일 골치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식을 가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혼을 하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식들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 항상 결정을 짓는 것이다. 모정이 부정보다도 강하다는 것과 어머니가 아이들 한테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보통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게 많다. 아내가 여자로서 나쁜 짓을 해도 미국서는 나쁜 여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나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어머니가 자식 한테만 나쁘지 않게 하였으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 하라고 법정에서는 말하고 있다. 보통 아내가 어린애들을 책임지고, 남편은 어린애들을 위해 꼭 양육비를 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틈틈이 어린애들을 보러 갈 수 있는 허락을 얻는다. 이혼 수속을 접수시키면 절대로 남편이 손을 못대게 판사의 명령을 받을수 있다. 남편도 아내가 두려우면 물론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드물다. 이혼이 아주 쉽게 되는 주이지만 이혼 하고나서 아주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생활을 하다 남이되면 보통 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혼을 시도하려면 중요하게, 깊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서 이런 충고가 필요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필자: TACOMA 시 변호사)

#### 오대양 식품점

FIVE SEAS

- Food Stamp 취급 • 주문배수
- 월간 잡지 취급

\* 영업시간: 월~금 (10:30 ~ 7:00)  
토~일 (10:30 ~ 6:00)

543 N.E Northgate Way, Sea. wa. 98125  
Tel. 365-9844. 525-2985

# CETA TRAINING PROGRAM

## 권 영길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란 저소득층 및 무직자들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나누면 이들의 고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 직업훈련과 단순히 실업자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위 CETA Job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인 CETA Job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일정한 기술과 경험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 고용주가 이미 사람을 정해놓고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 경험이나 연고 관계면에서 불리한 우리나라 이민들에게는 적당치 않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소개를 약하고 필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단기 직업훈련(CETA TITLE I)에 관해서만 지면이 허용하는 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 1. 대상 (Eligibility)

CETA Program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바 있으나 이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거 지난 12개월동안의 가족 총수입에 의해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 총수입 한도 액수는 가족수에 따라 또 음모자의 실업 유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얘기 할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음모자 본인이 현재 실업상태에 있으면 대략 만불정도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들중에서도 이미 일정한 기술을 습득 자격으로 충분히 직장을 구할수 있다고 인정되면 이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가치 첨가해야 할 말은 이들 대상의 범주에 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 설명할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의해 결정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직업훈련이 가능한 것이다.

### 2. 각 프로그램 소개

현재 King, Snohomish 2개 County 에 이 CETA Training Program 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대략 30 여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원자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이지역 전역에 걸쳐 9개의 접수 사무실이 있다. 이들 접수사무실의 임무는 지원자들의 수입 면으로 본 자격심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지원자에 알맞은 프로그램 안내이며 지원자가 아래 설명하려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기술훈련을 시작 할때 까지 모든 연락관계를 책임진다.

1). 영어 학교 (English as Second Language) 아시아 각국 (한국, 중국, 일본, 태완, 월남, 사모아) 에서 온 이민중 언어 장애로 인해 적당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하는 영어 학교는 현재 Seattle Central Comm. College에서 이를 담당 교육중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100개의 자리가 있어 우리나라 이민들에게 배정된 자리도 약 20 자리 정도가 된다. 훈련 기간은 최고 6개월이며 모집기간도 자연 1년에 2회 (봄학기, 가을학기)에 국한 된다. 원서 제출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다음 Class가 시작 될때 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자격은 기초영어 해독자 (국민학교 3, 4학년의 수준) 이어야 하며 영어학교가 끝나면 직장을 구하던지 아니면 기술학교에 들어가 기술 습득을 하여야 한다.

2). SOIC (Seattle Opportunities Industrialization Center) 일명 CETA 기술센터라고 불리우는 SOIC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걸쳐 약 6개월간은 기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 일반 사무직 및 키판취  
일반 사무직 훈련은 오후반 (3시 ~ 오후 10시)도 가능하며 또 이와 유사한 분야로 병원 사무직 훈련도 별도로 밤에만 Class가 있다. 입학자격은 7학년 정도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b) 기능 분야: 자동차 정비공 (Auto mechanic) 차체 수리공 (Auto body & fender repair), 목공 (Carpenter), 전공 (Electrician), 연관공, 용접공 등의 여러 분야가 있으며, 입학자격은 5학년 정도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요구한다. 또 자동차 정비공 및 차체 수리공은 와싱턴주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응모가 가능하다.

(c) 기타 분야로 요리사 (Cooking), 해기원 훈련 (Seamanship) 등이 있으며 자격은 (b)항과 동일하다. 또한 Community College 에 진학해서 의료 기술직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 보수반도 있다.

지원절차는 원서를 접수 시킨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Waiting List에 올라가 학교에 자리가 있을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Waiting 기간은 분야에 따라 또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치는 않으나 (c) 계통의 분야는 약 3개월 내지 6개월, (b) 항의 분야는 약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가 된다.

3). 개인 위탁 교육 (Individual Referral) 개인 위탁 교육이라 함은 Community College 또는 사설 직업학교에 개인적으로 위탁을 시켜 재정적인 지원을 CETA Program에서, 훈련은 이들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식이며 이는 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나 몇가지 예를 들자면 의료기술직 (X-ray Technician 등) 경리 사무직, 미용사, TV수선 등이다. 그러나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 현재 이 프로그램은 원서 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10월 전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 희박하다.

4). Class Group Training CETA Program에서는 경우에 따라 Comm. College 나 사설 직업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한 Class 전체를 CETA 훈련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Class는 보조 약사반 (North Seattle Comm. College) (정원 20명), 아시아에서 이민 온 간호원들의 주면허 시험 준비반인 Asian Nursing Program (Seattle Central Comm. College, 정원 20명), 경리 보조원 (Renton Voc. School 등 3개체) 제도사, (정원 20명) 등이 있다.

이들 Class 들은 대개 1년 과정으로 10월중에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 Class 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자금 지원이 결정되는 8월 중순까지는 그 전망이 불투명 하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중순 이후에 필자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더욱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릴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3. 한국인 참가 현황

CETA Program은 본래 미국의 저소득층 특히 일정한 기술 및 직업이 없이 방황하는 젊은 층 (18세 ~ 25세)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Program 이 이들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이 되고있어 교육수준 및 연령수준이 특히 높은 우리나라 이민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부적당한 점이 많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생활을 개척하려는 많은 이민들에게 정작의 한가지 방법으로 크게 도움이 되어왔던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작년 1년동안 CETA 프로그램에서 각종 훈련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의 수효는 약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단지 문제는 각종 기술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해독 수준이 우리들 실정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한국사람들의 자리수가 제한 되어있는 영어학교에만 너무 지원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문제도 최근 영어학교의 자리수가 늘어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자리를 빌어 CETA Program 중 E, S, L 및 Asian

Nursing Program 등 주로 아시아인들을 위한 Program의 창설에는 우리 한인 사회를 비롯, 아시아계 각 Community 및 E, O, C., DPAA 등 아시아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헌이 있었다는 것을 부기하여 둔다.

(필자: E. O. C. 근무)

o. 황 수철 (한인회 이사) 씨는 은행 업무로 한국에 가셨다가 지난 7월 26일 돌아 오셨음.

# 셋쓰속의 벌

목사 김혜성

지난 여름 한국에서 산상 집회를 인도 할 때 있었던 일이다. 52개 교회가 연합해서 산위에 대형 천막을 치고 5일간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참석을 했다. 둘째날 설교를 하는데, 앞에는 구름떼처럼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좌우 옆과 뒤에는 주회하시는 간사들과 목사님들이 앉아 계셨다. 하도 뜨거운 여름날이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숨도 제대로 못 할 정도라 넥타이를 풀으라고 해서 넥타이 셋쓰를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마리가 셋쓰속으로 날아 들어왔다. 설교를 중단 할 수도 없고해서 모르는척 하고 계속하는데 설교 끝날 때 까지 어찌, 가슴, 또는 잔등에 작으마치 여섯군데를 쏘았다.

셋쓰속에 벌을 넣어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동안 가는 조금도 바깥을 하지않았다. 예배 도중에 더욱이 설교하다가 목사가 벌에 쏘여서 정충거리는 물골을 하기가 싫고 그보다도 은혜를 사모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교인들의 예배 분위기를 깰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령의 셋쓰속에 벌처럼 쏘아대는 고통, 슬픔, 자기혐오감, 죄의감을 넣어두고 살고있는지 우리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내가 아무일도 없는듯 태연히 설교를 한것 같이 그들도 웃고 태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피치못할 외로움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실때 극렬한 외로움을 체험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곳이 없다" 하신 주님은 쓰라린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이의 심정을 이해 할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 그 주님이 친구처럼, 형제처럼 외로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짐을 대신 저주시되 사망까지 우리에게서 치워 주실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우리를 각각 이름으로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게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시 126:1-3)

<필자: 씨아틀 제일 교회 시무>

## ★ J.L Houston 한인직원들 ★

### 한인회·봉사센터 돕기운동에 앞장 서다

J.L Houston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들은 지난호 한인회보에 실린 한인회·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사를 읽고, 어려운 처지에있는 한인회를 돕자는 운동을 조용히 전개하였다고 한다. 20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이 부녀자들인데 한인 사회를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한데 뭉쳐서 단결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뜻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하겠다. 1불 2불의 적은 돈이지만 이분들이 모은 돈 33불을 받은 한인회장 김형진씨는 오랫동안 보는 한인들의 협동 정신에 감사하면서 더욱 용기를 얻게된다고 말 하였다. 개개인의 한국인은 모두가 우수하고 훌륭하지만 협력하고 단결하는데는 인색하며 약하고 또 불평만 한다는 평을 가끔 듣는 한인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협동정신을 보여주는 J.L. Houston 직원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수 없다. 이분들의 협동심에 자극을 받아 한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몇몇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J.L. Houston 한인 직원들 여기에 참여한 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 종옥, 박 영희, 경자 martin, 박 문주,
- 이 커자, 윤 정숙, 조 Grace, Gina Thompson
- 분 의선, 하 영희, 하 향미, 최 창하,
- 은조 Shoup, 김 정인, 김 영애, Jamie,
- 황 승춘

## News 뉴스

○ 지난 7월 16, 17 이틀간 상영된 한국영화 '성추방'은 200 명이 넘는 교민들이 관람하였는데 오랫동안 보는 한국의 풍물과 습관을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다. 이 도량이 금의환향, 추방을 구하는 장면에서는 모두들 박수를 보냈다.

○ 토요일 축구팀은 7월 23일 U.W 축구장에서 미국인 팀과의 친선게임을 가졌다고 한다.

○ 씨아틀·번쿠버 친선 야유회 성료.  
지난 7월 2일에 있었던 양국 한인들의 친선 야유회에는 약 400명의 한인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씨아틀 한인 사회의 원로이신 이 장희 선생 내외분, 최 용걸 목사 내외분, 이 현기 선생 내외분을 비롯하여 많은 씨아틀 한인들이 참석하였다. 김 형진 씨아틀 한인회장, 박 상훈 번쿠버 한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축구, 배구, 텃치볼, 아동경기, 노래자랑등의 프로는 시종 흥미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특히 축구경기는 7:1로 씨아틀이 크게 이겼다. 마침 대한 축구협회에서 보내온 커다란 우승기가 12시에 한국으로 부터 도착하였는데 씨아틀팀이 이 우승기를 차지하였다. 내년에는 이 행사가 씨아틀 주최로 열린다.

○ 한인 연합 합창단  
씨아틀·타코마지역 합창 애호가들은 지난 6월 연합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각교회 성가대의 중견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월 2회 연습을 한다고 하며 금년 말경 창단 기념 첫 공연을 하리라 한다. 성가와 우리 가곡, 민요등을 부르게 될 이 합창단은 앞으로 약간명의 단원을 더 증원하리라고 하는데 합창에 관심 있는사람은 다음으로 연락하면 된다.

- 632-4055 장 신재 씨
- 363-0416 이 학유 씨
- 762-2423 이 수호 씨

## 교회소식



- 최용걸 목사(형제 교회) 내외분, 약 1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 한인 장로교회(안 성진목사)는 7월 24일 야외 예배를 KAYAK Point Park에서 보았는데 약 200명의 교인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 안 성진목사님, 한국 방문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 정 남식 목사(타코마 중앙교회), 7월 24일 다음 주소로 이사 하겠다고 합니다.  
6802 So. Yakima Ave  
Tacoma, wa. 98409  
전화는 전과 같다고 합니다.
- 김 동빈 목사(서울 한성교회), 7월 24일 주일에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설교 하셨습니다.
- 옥 민권 전도사(타코마 중앙교회), 7월 17일 씨아틀 형제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 하셨습니다.
- '씨아틀 한인교회는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 정 하경 목사(씨아틀 한인 침례교회)님은 지난 6월 29일, 미국 침례교 전국 총회로부터 선교사로 임명 받았습니다. 미국 침례교에서 한국 목사를 선교사로 정식 임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 연락처는 다음으로...  
(교회) 632-9485 (목사댁) 542-4391

**씨아틀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미국방문 특별환인, 국제 국내 항공권 판매  
가족초청 및 세반여행 수수대행

이	규	영
LEE	KYU	Y.

Tel. (206) 623-9290 (Office)      1928 Second Ave.  
(206) 322-3732 (Home)          Seattle Wash. 98103

**<수필>**

**흐뭇한 서울 거리를 걸어보고**  
안 성진

매일 걷던 을지로 길이 이렇게도 달라질 줄은 몰랐다  
곧장 뚫린 거리가 을지로 6가 까지 한눈에 들었다.  
나는 갑자기 길이 서투른 감이 들었다.  
한번은 분명히 태평로 베타리라고 찾아왔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흘러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두 넓  
어지고, 모두 높아졌다. 모두 높아지고, 모두 요란해  
졌다. 정말 서울 같지가 않았다. 천천히 발을 옮겨  
서울 시청앞에 이르니 문자 그대로 고층빌딩의 필림이  
었다. 그리고 돈들도 많은 것 같았다. 간 곳마다 상  
가들이 즐비 하였는데 모두 사치스럽게 만들어진 고급  
물건들이 산뎀미 같았다. 입고 다니는 옷매들도 모두  
사치스럽게 한이 없었다. 잠깐이나마 나과 밖에 있던  
나로서는 흐뭇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네 문제가 항상 보이는데서가 아니  
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잘살수 있다면 게서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실로 우리 주변에 굶주림이 없다면야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항상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 않  
는게 인간이란 말이다. 즉 수평적인 문제, 곧 사회적  
문제와 전인적(全人的)인 안정과 사랑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인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래서 구약성서 아모스서에는 정의가 없는 사회를  
신랄히 비판한 바 있는 줄 안다.

"주체할수 없이 돈을 끌어모은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깔고 앉아 사치놀음에 몸을 담고  
있다." 고 당시의 사회상을 무참히 책망했다.

(3장 13절 이하)

"암소같은 계집들이 사마리아 산정에서 배불리 처먹  
으며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  
으며 술을 가져오와 술컷 퍼마시자 하며 흥청대다

고 꾸짖었다. (4장 1절 이하) 그리고 아모  
스는 "궁핍한에 무수한 부조리와 폭력행위가 가득한  
사회"라고 꾸짖고 성문앞 재판정에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이 사정없이 기각된다"고 계속  
책망을 퍼부었다. (5장 12절) 아모스는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소망한 선지자다. 권력과 금력의 휘  
감간자들이 하루속히 절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야훼  
를 찾으라고 했다. 악행을 미워하고 선행을 사랑하  
며 공법을 수행하고 정의를 따르라고 호소했다.  
공법은 불결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는 강물처럼 흘러  
야 한다고 했다. (5장 24절)

예수님도 한번은 곡식을 곡간에 가득 쌓은 부자에게  
오늘밤에 비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란 멋진 비유를 말씀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부조리와 불균형에 관해서도 민감하기 그지 없었다.

— 공법은 불결처럼 정의는 강물처럼 — 이란 유명  
한 아모스선지의 표어는 비단 사마리아인만에 국한된  
표어는 아닐 것이다. 가장 풍요를 자랑하는 현대  
판 미국을 비롯하여 사랑의 공동체적인 이념을 망각  
한 20세기 말엽에 자본만을 숭배하는 모든 자본주  
의 사회가 꼭 같이 책망을 들어야 할 훌륭한 교훈  
인 줄 안다.

(필자: 씨아틀 한인 장로교회 목사)

**남서 지역**

부동산

주택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 15th SW, Seattle, Washington 98148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4515

Res. (206) 932-3595



**한인회 봉사센터 안내**

지난 7월 15일 오픈한 봉사센터를 안내 합니다.  
두 사람의 플라임 직원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  
후 5시 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의 모든  
사무를 취급하면서 교포들의 문제를 돕고 있사오니 많  
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 봉사센터에서는  
한인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조직화 하여 실천하는  
데 노력하면서 교포들의 제반 사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 한인회보 발간의 충실화. • 78년도 와  
싱턴주 한인 주소록 발간 준비작업. • 한인회 연례 행  
사 계획. 준비 및 실행. • 교포들의 광범한 어려운 문  
제 협조(관청 업무, 개인 상담). • 처음 이민 오는  
교포들에 편의 제공 등.

이제 막 출발하여 두 사람이 일을 보기 때문에 모  
든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인 봉사센터에서  
일을 보는 직원은 이 수호씨와 하 영희씨 입니다.

-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 전화: 624-7604
- 주소: 612 6th Ave S. (우아지마야 앞)  
Seattle, wa. 98104

**[이사]** 오 임 용근(오대양주인)씨 4월말. 다음  
주소로 이사 하셨습니다.  
16741 CorLISS AVE N.  
Seattle, wa. 98133

o. Lea J. Armstrong (한인회 부회장)씨 새주소  
1021 E. Maclyn. St.  
Kent, wa. 98031

o. 김 건상씨 새 주소  
6935 DELRIDGE WAY SW #101A  
Seattle, wa. 98106

**[새 전화]** 오 안 성진 목사: 364-0092  
o. 박 암·박 유철씨: 362-9565

**이런일 저런일**

**o 나날이 늘어나는 한인 업체들 o**

**\* 가발 상점 오픈 · 이 종건씨 \***

타코마, Empire Way에 각각 가발상을 경영하고  
있는 교포 John LEE씨는 지난 7월 1일,  
씨아틀 다운타운에 또 하나의 가발상점을 오픈, 성  
업중이라고 한다.

**\* KOREA CENTER 코리아 센터 \***

이미 아는분은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씨아틀 중심지  
역에 코리아 센터가 생긴다. 바로 일본인들이 경영  
하는 '우아지마야' 앞 남쪽으로 한집 건너편에 자리잡  
은 큰 건물이 바라보인다. 사업주 스펜사·김씨는  
'우아지마야'를 볼때마다 우리 한국인도 남들에 못지  
않은 그럴듯한 사업체가 있어서 한국인의 긍지를 살  
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 수리가  
한창 진행중인 코리아센터는 8. 15를 기하여 오픈  
하려했으나 공사 진행이 늦어 8월 말이나 9월초에  
야 오픈 될것 같다고 한다. 처음에는 우선 한국  
식품일체를 취급하면서 다른 식품도 겸한다고 한다.  
규모에서나 시설면에서나 식품의 커머스에서 '우아지  
마야' 보다 능가하도록 하겠다는 스펜사·김씨의 말이  
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와 같은 사  
업체가 씨아틀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수 없다.

**\* 자동차 정비 · Gas Station 오픈 예정 \***

8. 15를 기하여 또 하나의 교포 업소가 오픈  
된다. 백 용기·안 종길씨는 240 Pacific Hwy.  
S. 에 자동차 정비와 Gas를 취급하는 "Union  
76"를 인수 맡아 곧 오픈 하리라 한다. 여기에  
서 일할 mechanic한 사람과 펌프맨 한 사람을  
구하는데 흥미 있는 사람은 244-2611 로 연락  
하면 된다.

## ◎ Job Bulletin (사람 구함)

1. Project Coordinator (기획 원)
2. Program Assistant (프로그램 작성자)
3. Receptionist (접수인)
4. Client Advocate.

다음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Asian Counseling & Referral Service  
655 So. Jackson St. Sea. Wa. 98104
- 전화 : 623-6756

5. Mechanic 1명. 가스 펌프맨 1명.

### ★ 극빈자를 위한 안내 ★

미 북서 태평양 연합 감리교 총회와 에큐메니칼 (Ecumenical) 에 관계하고 있는 김 종원박사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한인교도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극빈자를 도울수 있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교포들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 한인 봉사센터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한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7월 27일, 봉사센터에서 있었던 한인회 임원·이사 공동회의에서는 범 한인단체, 혹은 개인의 참여 하에 「한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 가운데서 뜻이 있는분은 누구나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한인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5살난 진희양은 지난 5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전국 예쁜이 선발대회에서 「선」에 당선. 또 6월에는 「애기 춤」으로 무용대회에서 특상에 입선 하였습니다.

★ 박 암 선생, 한국에서 수상집 「구름은 가고 물은 흐르고」를 출판 하였습니다.

**무동산 매 매**

가옥      식당      상업건물  
모텔      토지      호텔

김 일 영      Off: 475-6262  
IL YONG KIM      Res: 845-2236

REALTOR      MLS

###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모처럼 이룩한 봉사센터와 한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회비와 기부금을 보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직도 회비의 납부를 하루이틀 미루고 있는 분, 무관심 하신분, 체크 쓰기가 귀찮은 분들께서도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 주시면, 한인회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1가정에 년 5불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인회나 봉사센터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때 정상적으로 발전될수 있습니다. 「회비」 「기부금」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바라며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우리도 한인회를 돕시다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계속) < 7.27. 현재 >

61.	김 스펜사	10불
62.	박 Regina	10불
63.	허 남일	10불
64.	오 남수	10불
65.	윤 학덕	20불
66.	이 유신	10불
67.	마쯔무라, 조지	10불
68.	이 경훈	5불
69.	김 문규	10불
70.	이 규조	20불
71.	김 형식	20불
72.	엄 도승	10불
73.	마사끼 은순	5불
74.	정 복득	10불
75.	한 만섭	10불
76.	곽 종세	10불
77.	최 토마스	5불
78.	장 북안	5불
79.	이 케남	10불
80.	Gina Ha	10불
81.	안 종길	10불
82.	백 용기	10불
83.	이 정태	10불 (정정)

## 한인회·봉사센터 운영 기부금 납부자

- 김, 스펜사 ..... 200불
- KOTRA(대한민국 무역진흥공사) ... 50불
- 김 학 조 ..... 10불
- 전 기 수 ..... 10불
- 변 덕 암 ..... 5불
- 최 용 결 목 사 ..... 10불
- 정 명 화 ..... 10불
- 김 생 근 ..... 10불
- J.L. Houston Inc.  
한인 직원 일동 ..... 33불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부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 IKEDA & Co. INC.  
7월 2일 씨아틀 벤투어 친선 야구회를 위하여 전기밥솥 한개를 기증하였습니다.

**헨리 장 여행사**

☆ 모국방문단 모집 ☆ 각종수속 대행  
☆ 국내외 항공권 판매 (항공료 배달 봉사)

9002 -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2

Associated with  
AMERICAS TOURS & TRAVEL  
1218 Third Avenue, Suite 2307  
Seattle, WA 98101

**Henry Chang Travel Service**

### — 엮고 나서 —

- 한인사회에서 나날이 협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맘 흐리는 보람을 느낀다.
- 8월 말 발행은 쉬고 (주소 인쇄 관계로) 9월 말에 다음호를 내게 되었으니 숨돌릴 시간이 생겼다. 많은 투고가 기다려진다.
- 어려운 글을 주신 권 영길씨께 감사 합니다.

😊 집 없으면 집은 사고  
😊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에서  
(FRANK) HYUN CHOO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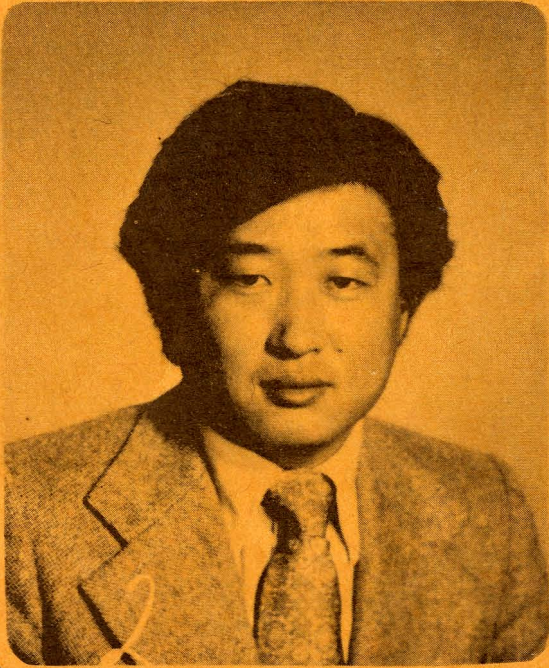
• 무료봉사: 출산 이사를 위한 버드리, 정확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 무료상담: 정확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12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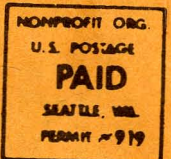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Dr. MANSOP HAHN  
12901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